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. 30(토)	
		작성 · 문의	경제조정실 해양교통정책과 과장 송기진 / 서기관 조승희 (Tel. 044-200-2239)
엠바고	1.30(토) 16시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
## 인천공항, “연속된 보안실패 있을 수 없는 일, 비상한 각오로 국경관문 역할 다해야”

- 설 연휴, 중국인 등 관광객 집중 앞두고 “공항운영에 한 치 흐트러짐 없어야” -

- 황교안 총리, 30일(토) 인천공항 찾아 현장점검 후 지시

- 중국인·베트남인 밀입국 등 관련 “철저한 보안은 공항운영의 기본”
- “국민의 안전 위협은 용납 안 돼... 테러 방지 강화” 강조
- “과감한 개혁으로 세계 1위 서비스 공항 위상 지켜야”

- 정부, 31일 일요일 2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 열어 인천공항 보안방안 등 논의키로

□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천공항 보안 및 테러 방지 강화와 개혁, 공항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정책 전면에 직접 나서고 있다.

○ 황 총리는 30일(토) 오전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 보안 및 테러 방지 실태, 인천공항 운영현황 및 수하물처리실태 등을 점검하고, 보안은 공항운영의 가장 기본이라며, ‘연속된 보안 실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비상한 각오로 보안을 강화’하라고 지시하였다.

\* 참석 : 최정호 국토부 2차관, 이창재 법무부 차관, 이호진 인천공항 사장직무대행, 조경규 국무 2차장 등

- 이번 방문은 1.21(목)과 1.29(금) 연이은 중국인·베트남인 밀입국 사고 및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(1.29) 등으로 국가관문이 위태롭게 됐다는 황 총리의 인식과 함께 지난 1.3(일) 발생한 수하물 처리지연 사고로 최근 세계 최고 공항으로서의 인천공항의 위상과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서 이뤄진 것으로, 이는 최근 황 총리가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 현장에서 강한 정책메시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.
- 지난 1.26(화) 오후에도 황 총리는 제주공항 결항(1.23), 중국인 밀입국 사건보도(1.25)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자, 국토부 2차관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, 이례적일 정도로 강하게 공항보안 강화와 인천공항 경쟁력 제고대책 등을 주문했다.

#### <인천공항 보안강화 및 대테러 방지 관련>

- 황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방문 현장에서 중국인 두 명의 보안 검색장내 밀입국 경로를 직접 따라가며 공항 보안상 문제점을 점검한 후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. 또, 폭발물 의심물체 및 아랍어 경고 메모 발견 관련 현재 수사상황 및 테러 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.
- 황 총리는 “보안이 뚫리면 모든 걸 잃게 된다. 지금은 보안비상 상황이다. 보안이 경쟁력의 기본 중 기본”이라며, “연이은 중국인·베트남인의 밀입국, 수하물 지연사태 등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”고 강조하면서,
- “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보안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공항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”고 주문했다.
- 황 총리는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아도 공항 근무관련자의 근무자세가 흐트러지면 문제라면서 근무자들의 태세확립을 강조했다.

- 특히,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하고, 테러 방지를 위한 대책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.
- 이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공항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.
- 국토부와 법무부는 출국심사장 출입문에 적외선 감지시스템 및 알람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국가관문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.

#### <인천공항 수하물처리 대책 관련>

- 또한, 황 총리는 수하물처리시설의 실시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수하물 처리지연 사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.
- 이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수하물처리 지연 재발대책과 공항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.
- 우선 국토부는 서울항공청, 인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 (1.5~1.11)한 '수하물 처리 지연사고 조사' 결과를 토대로 수하물 관리센터 운영개선, 피크 시간대 중첩근무, 수하물처리시설 노후부품 교체, 시설보완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.
-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설 연휴 등 이용객이 급증하는 경우에도 수하물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## <인천공항 경쟁력 제고 대책 관련>

- 황 총리는 이날 이호진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공항운영 관련 보고를 받은 후 “새로운 시각에서 공항발전 청사진과 세부 발전전략을 마련하라”고 국토부 관계자와 공사 경영진에게 지시하였다.
  - 황 총리는 특히, “제2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수용능력을 확대하고, 공항서비스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  - 이에 대해 국토부는 3단계 확장사업을 '17년까지 완료하여 제2터미널·계류장 등 공항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,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여객수용 용량이 약 1,800만명 증대(현재 5,400만명 → 7,200만명)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.
- 한편, 황 총리는 공사 경영진들에게 “그간 공사 경영진이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운영해왔는지 자문하고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”고 말하고,
  - “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여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해 달라”고 덧붙였다.
  -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관련, 인천공항공사 조직혁신, 환승 경쟁력 제고, 외항사 유치강화 등의 인천공항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세계 5대 국제공항 및 10대 환승공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이다.

## <설 연휴 특별대책 관련>

- 황 총리는 이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특별수송 대책을 점검하면서, 중국 관광객 등 이용객\*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, “설 연휴 기간 동안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공항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\* 전망(만명) : (2.5일) 17.9 → (2.6일) 17.9 → (2.7일) 16.4 → (2.10일) 18.4

\* 연도별 여객수(일평균, 만명) : ('13년) 11.3 → ('14년) 12.5 → ('15년) 14.9

- 황 총리의 설 연휴 특별대책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대책본부장으로 5개 대책반\*을 가동하여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,

\* 상황반, 터미널운영반, 운항관리반, 운송시설반, 교통운영반

- 초동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비상대기 인력을 투입하고, 국적기 카운터도 조기에 오픈(06:10 → 05:30)할 예정이다.
- 또한, 출국수속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해 셀프 체크인을 활성화하고, 피크시간대 검색인력과 정비를 100% 가동하며, 출국장 1개소도 30분 일찍(06:30 → 06:00) 개방한다.
- 특히, 피크시간대 수하물 증가에 따른 사전 대응을 위해 수하물 예보제\*를 운영하여 수하물처리 지연에 대비하기로 하였다.

\* 시간당 출발 수하물 집중도와 양에 따라 처리상황을 관심/주의/경계/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그에 따라 인력 추가투입 등의 조치 실시

- 한편, 정부는 1.31일(일)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인천공항 보안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
## 참고1

#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설(BHS) 개념도

### □ 시설 개요

- (기능) 수하물처리시스템(BHS, Baggage Handling System)은 수하물의 Tag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신속·정확하게 수하물을 분류·이송하는 시설
- (구성) 수하물을 항공편별로 분류 및 이송하는 출발·환승시스템과 항공편 여객수하물을 도착 수취대 까지 이송하는 도착 시스템으로 구성
  - \* 인천공항은 자동시스템, 국내 타 공항은 단순 컨베이어 이송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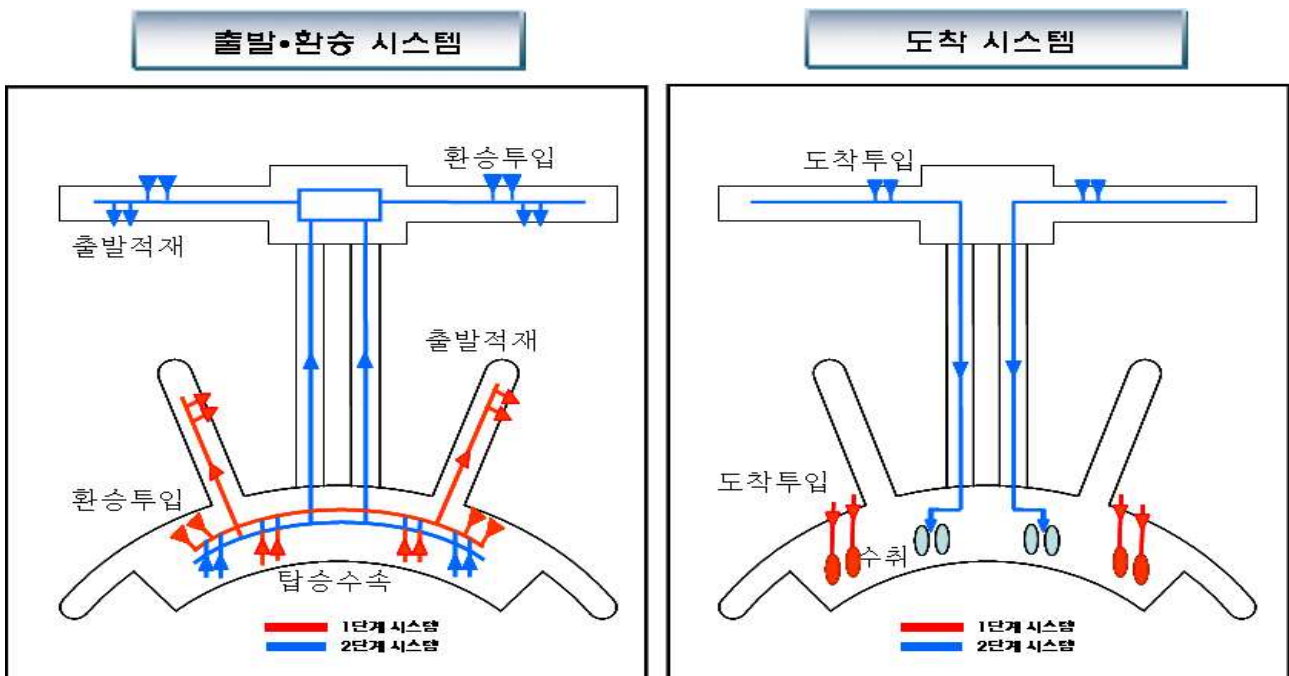
#### <수하물 처리 흐름도 : 출발 기준>

- (여객터미널) 3층 수하물 체크인카운터 → 검색 → 운송 컨베이어 → 수취대 → 탑재
- (탑승동) 3층 수하물 체크인카운터 → 검색 → 운송 컨베이어 → 여객터미널 지하1층(컨베이어→트레이 상차) → 고속 트레이운송(지하 터널, 7m/s) → 탑승동 지하1층 → 메인루프(항공편별 자동분류) → 수취대 → 탑재

\* 출발항공편 수취대에서 항공기 탑재는 항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지상조업사가 수행

\* 시간당 처리용량(출발)은 14,400개, 1.3(일) 최대 처리수량은 7,500개

- 출발·환승 및 도착 수하물처리 흐름도



## 참고2

##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개요

- (추진배경)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고, 동북아 허브경쟁 우위 선점을 위해 공항 인프라 확충
  - '18년 평창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 지원과 공항 혼잡완화 도모
- (사업개요) '09~'17(9년간) 총 4.9조원을 투입하여, 제2터미널, 계류장, 접근/연결교통 등 「공항 인프라 단계적」 확장추진

구 분		1, 2단계	3단계	비 고
여객터미널		5,400만명 (T1 ↔ 탑승동A)	1,800만명 (T2 일부)	7,200만명
화물터미널		450만톤	130만톤	580만톤
교통센터		250천㎡	135천㎡	
IAT		0.9km 복선서틀	1.5km 복선서틀	
공항철도		서울역↔김포↔T1 61km	T1↔T2 연결철도 6.4km	67.4km
계류장	여 객	여객 108개소	여객 56개소	여객 164개소
	화 물	화물 36개소	화물 21개소	화물 57개소

- (추진경과) '09년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단계적 추진
  - '09. 6 :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(3단계) 변경고시(6차)
  - '10. 6 : 3단계 기본설계 용역(공항시설:'10. 6, 건축시설 '11. 7)
  - '12. 5 : 3단계 실시설계 용역(공항시설:'12. 5, 건축시설 '12. 9)
  - '12. 12 :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(3단계) 변경고시(7차)
  - '13. 6 :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 및 파일공사 착수
  - '14. 6 :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(3단계) 변경고시(8차)
  - '15. 7 : 제2여객터미널 마감공사 착수
- (향후계획) '17년 준공에 차질없도록 역량을 집중('16년말 85.4%달성)
  - '16. 4 : 제2여객터미널 영구전원 수전
  - '17. 4 : 여객터미널 시험운영 착수

《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(3단계사업) 》





**< 항공수요 예측 >**

- 설연휴 간 일평균 17.3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16.4%증가(최대 혼잡일 2.10(수), 총 183,919명 이용 예상)
- 일일 총 여객, 도착/출발 여객, 운항횟수 모두 역대 최다 예상

**< 특별수송대책 주요 내용 >****□ 체크인 혼잡 완화**

- 출국 승객의 65%를 담당하는 국적사 체크인카운터 오픈 시간을 조정(06:10→05:30)하여 피크시간 혼잡 완화
- 자동 탑승수속 전용구역(탑승권발권+수하물위탁 One Stop처리) 조기 오픈(06:30→06:10) 및 안내요원 조기 배치

**□ 보안검색 효율화**

- 첨두시간 검색대(57대) 100% 가동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사전 계도를 위한 검색인력 추가 투입
- 출국장 1개소 오픈시간 조정(06:30→06:00)하여 혼잡 시간대 출국장 진입여객 집중현상 완화(1.29~2.6, 총 9일간)

**□ 운항관리 대책**

- 주기장 혼잡 가중 시 리모트 주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비상주기절차에 따라 신속 대응하여 주기장혼잡 최소화
- 강설예보시 항공사, 조업사, 관련부서 비상전파 및 관제사 비상근무 시행

**□ 대규모 결항 발생 시 체류객 처리 대책**

- 여객 대상 담요, 식수 등 편의물품 사전 확보 지원 및 안내인력 확대
- FIDS 표출, 안내방송, 안내매체를 통해 운항 상황 신속 공지
- 심야 시 휴식 공간 제공, 편의시설 및 교통편 연장 운영 협의
- 항공사의 여객 응대 및 여객 대기공간 제공 (CS아카데미 활용)